

# 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월 5만원 인상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가 1주일간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광주일보가 하반기 바뀌는 주요 제도와 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편집자주>

## 고용·노동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7월 1일)되고, 유사업종도 특례도입 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9월 1일)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생겨=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15~34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상한액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이다.

## 일반 공공행정

▲문서24 서비스 확대=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9월부

터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지급되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만 해당됐다.

## 복지·의료

▲건강보험료 개편=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상·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도 폐기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 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반으로 낮아진다=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500만명 가량이 연금액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연금 기조금여액 25만원으로 인상=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조금여액이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인 생김다=9월 20일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아동수당 도입=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채용=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지난해 사상 첫 40만대 돌파를 이룩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제1공장 쏘울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마지막 조립 및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왼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직원들이 완성된 타이어를 검사하고 있다.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거부면 벌금 500만원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여권 만료 6개월전 알림  
병사 목돈마련 적금 한도 월 40만원으로 상향  
수입돼지고기 축산물 이력제·청년창업자 무료변리  
대형병원 2·3인실 건보... 초등생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리점·가맹점 '갑질' 포상금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9월부터는 초등학생도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본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 아동은 219만명에서 563만명으로 늘어난다.

## 국방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7월 17일 공포예정)을 제정해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4000만~1억8000만원이다.

## 금융·재정·조세·중소기업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존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하는 '직업교육' 고3학생에게 300만원 지급=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 공정거래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지금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통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 사유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외판사심 신고, 공정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리점·가맹점 '갑질' 증거 내면 포상금·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매장 영업시간 구속 금지=매장 임차인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마트나 백화점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산출 근거 명시의무화=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방법·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보훈·병무·외교

▲국가공공자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공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사망 때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일차 연기 제한=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연기가 제한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가 하반기 중 시행된다.

## 공공안전·질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경우 삭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9월 28일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9월 28일 시행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9월 28일부터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환경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1월 29일부터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 산업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지난 5월 29일부터 유흥·상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청년고용기금지원자금 신설=정부의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고용지원자금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2.3%)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당 45억원 한도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다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대표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